

## 9장 자본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혁명

원문헌: Making Sense of Marx Ch9

저자: 은 엘스터

번역자: 이한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혁명적 이행은 맑스의 삶과 연구의 핵심이었다. 전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연구와, “역사적 유물론”이라고 알려진 연구는 그 압도적인 관심사에 입혀진 옷에 지나지 않았다. 그 이행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 어디로 가는가가 바로 이 장의 주제다. 앞의 장에 논의했던 것들을 요약하고 통합하면서, 나는 자본주의-의 발전, 생리와 병리-에 대한 맑스의 견해를 먼저 논할 것이다. 자본주의의 병리는 특히 그의 관심을 끌었던 주제다. 그는 자본주의가 비인간적이고, 부정의하며, 낭비적인 체제라고 믿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이 모든 측면들의 반대되는 극에 공산주의 사회가 존재하며, 그것의 도래가 임박하고 피할 수 없다고 믿었다. 나는 그 다음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그의 윤리학적, 경제학적, 정치학적 관념을 살펴볼 것이다. 이 관념들은 대체로 유토피아적이거나, 모두 같은 정도로 유토피아적인 것은 아니다. 소망적 사고와 과장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디어들은 정치이론과 정치적 행동에 소중한 길잡이로서 남아 있다. 나는 자본주의의 병폐와 공산주의의 가능성이 노동자들을 혁명적 행동으로 이끄는지에 대한 그의 견해를 살펴보고 결론을 지을 것이다. 만약 그의 이론이 우리를 설득하는 데에 실패한다면, 공산주의는 필연적이라는 점을 맑스가 너무도 당연시하여 그것에 대한 논변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 자본주의

와실리 레온티에프(Wassily Leontief)에 따르면, 맑스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독창적 관찰자였다. 맑스는 자본주의 기업가의 동기가 무엇이며 이 동기들이 집단적 정치적 수준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변형되는가에 대해 진실로 강력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역사에 대한 장은, 관찰과 종합을 탁월하게 함께 수행하고 있다. 맑스는 풀어야 할 의제를 설정했고, 무엇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긴 여정을 걸어갔다. 그러나 레온티에프가 암묵적으로 내리고 있는 비판적인 평가 역시 깊이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독창적인 관찰자는 심리학자가 아니다; 그리고 위대한 경제사가와 사회사가는 훌륭한 경제학 이론가일 필요도 없다. 나는 비록 폴 사무엘슨이 자본주의 출간 1세기 되던 해에, 맑스는 기본적으로 ‘이류 리카도주의자였다’고 언급하였을 때 화가 난 것을 아직 기억하고 있지만, *자본II*와 *자본III*에 들어 있는 경제학만 따로 떼내어 평가하자면, 이제는 그 견해에 대체로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I*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자본주의 공장과 자본주의 기업에 대한 분석이다. 자본주의 기업가에 대한 맑스의 묘사는, 베버나 슈페터 또는 그 이외의 다른 어느 학자들보다 다면적이고 통찰력 있는 작업으로 남아 있다. 자산 관계, 권력, 기술 그리고 합리적 의사결정의 상호 관계가 그렇게 선명하게 포착된 적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다. 보다 기계론적인 맑스의 몇몇 주장들은 당연히 기각되어야 하겠지만, 앤드류 울(Andrew Ure)의 저서는 우

리에게 그 주장들의 기초가 분명히 존재함을 상기시켜 준다. 역사적으로는 기업가에 대한 분석보다는 덜 주목받지만 역시 탁월한 업적은, 바로 기업체계로서의 자본주의-기업간 경쟁, 공장제 수공업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의 이행, 축적 성장과 기술적 변화-에 대한 분석이다. 이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경제 발전이 계급투쟁을 어떻게 형성하며 계급투쟁이 경제 발전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그리고 계급투쟁이 다른 수단들에 의해 어떻게 정치의 영역에서 나타나는가에 대한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의해 통상 무시되는 선구적 업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경제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경제적 행위자들의 신념이, 체제와 이중 인과 관계를, 즉 신념이 체제의 내생적 산물이자 동시에 체제를 재생산하는 요소임을 보여준 것이다. 맑스는 그 모든 것을 모든 분석 수준에서 다루었다. 개별 행위자의 수준에서 집합 행위의 수준까지, 정태 분석에서 동태 분석까지, 경제의 수준에서 사회적, 정치적, 이데올로기 수준까지. 이제까지 앞의 장들에서 나는 그 분석들을 따로 따로 떼어서 종종 매우 비판적인 태도로 논하였다. 그러나, 하나 하나 떼어서 보더라도 이 분석들은 인상적이며, 함께 합쳐서 본다면 압도적으로 인상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 구성을 위해서는 그 이론들이 묻혀 들어가 있는 오도된 이론들로부터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선, 맑스의 분석에는 헤겔주의적 방법이 무수히 많이 남아 있다. “자본”은 때때로 그 자체의 의지를 가진 행위자처럼 신비스럽게 나타난다. 공장법은 자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마술인 것처럼 출현한다; 사회 이동은 자본주의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일어난다; 중농주의자의 교리는 봉건체제 내에서 자본주의를 대변하기 위해 출현한다. 나는 이러한 과정들의 특성을 바로 그 방법론적 전체주의, 기능적 설명과 변증법적 추론의 결합물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아마도 이 모든 방법론들은 보다 일반적인 명칭인 목적론(teleology)이라는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자본을 축적시키는 보이지 않는 손이 맑스에서 나타나는 목적론의 주요한 형태 중 하나다. 다른 하나의 목적론 형태는 자본 축적 과정 그 자체가 결국에는 자본의 체제를 필연적으로 파괴한다는 논리다.

또 다른 것으로는, 맑스가 노동가치론을 고수함으로써 자본의 분석이 흠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맑스 자신의 고유한 노동 가치론 판본은 몇몇 측면에서 순진한 것이며 기술적 오류들에 의해 훼손되어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노동과 노동이 갖는 상이한 비효용이라는 조건을 인정하게 되면, 맑스 노동가치론의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잘 정의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반대로서, 심지어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을 무시하더라도, 그 이론을 채용해야 할 아무런 분석적 목적인 존재하지 않는다. 맑스 노동가치이론은 다른 이론들이 더 간단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 중에 혼자만 설명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균형가격과 이윤율을 설명하는 목적에서 보자면 노동가치이론은 단순히 성가실 뿐이다. 노동가치론은 정확한 연역을 허용하지만, 그것도 불필요하게 복잡한 방식으로만 그렇게 할 뿐이다. 기술 변화와 균형 경제 성장을 연구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는, 헤겔주의자로서의 맑스 본인도 판별할 수 있었던 여러 이유들로 인해, 노동가치론은 적극적으로 해만 끼칠 뿐이다. 맑스는 가격체제는 단순히 피상적인 현상임에 비해 가치계산이 자본주의 체제의 내적 본질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동가치이론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시각에 따르면, 개별 행위자의 행위는 가치에 의거해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 버린다. 왜냐하면 가치는 관찰될 수 없기 때문에 ‘의도적 행위’를 설명하는데에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맑스가 그의 후계자들이 잉여 가치의 극대화로서 기술 선택을 설명하려고 하거나, 자본 부문과 소비 부문이 동일한 잉여 가치율을 갖는다고 논할 때에 그들은 속류 경제학이 저지르는 오류를 뒤집은 오류를 범했다. 즉 그들은 본질을

현상이 가야할 자리에 놓았던 것이다.<sup>1)</sup>

자본주의에 대한 맑스의 비판은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자본주의는 인간이 유적 존재로서 갖는 힘으로부터 인간을 소외시키기 때문에 *비인간적이다*. 맑스가 힘이라는 용어를 통해 의미했던 것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는 달리 그 지적 능력과 언어, 그리고 도구를 만드는 능력 덕분에 고유하게 할 수 있는 창조적 행위였다. 맑스는 이러한 힘들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며, 이 목표는 인류 전체에게도 개별 인간에게도 모두 궁극적인 선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견해와 관련된 그의 논변은 부분적으로 공리주의적인 색조를 띠고 있다. 능력을 발전시키고 사용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깊은 만족을 주는 행위이다. 부분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이다: 인간은 인간의 본질과 고유한 목표를 실현해야 된다. 즉 창조적이어야 한다. 자본주의는 인간 종의 힘을 유례 없이 확장시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별 인간 존재의 창조적인 힘이 모든 측면에서 발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재앙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소외다: 인류의 가장 심오한 필요의 좌절, 즉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필요의 좌절이다. 이 필요를, 인류가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필요라고 맑스가 믿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때때로 소외는 자아실현의 결여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에 대한 의식의 결여를 의미하기도 한다. 또 어떤 때에는,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좌절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것은 하고 싶은 것을 못해서 생기는 좌절이 아니다. 그보다, 그 좌절의 핵심은 실제 사회 상태에서 실현가능한 욕구가 좌절되는 것이다. 역시 이것도 집합적 현상이다.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서도 인류는 다른 사람들의 희생 하에 실현할 수 있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좌절하였다. 자본주의의 소외는 필요의 만족이 대규모로 가능하면서도 실행되고 있지 못한 사태를 가리킨다. 실현가능성과 실제 실현 사이의 간극을 사회의 구성원들이 인지하는 정도만큼-이렇게 인지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그들의 필요와 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가능성을 모두 알아야만 한다- 행동을 위한 거대한 동력을 제공한다.

두 번째로, 맑스는 자본주의가 심각하게 부정의한 체제라고 믿었다. 이 해석은 논쟁의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맑스주의 전통에서 정의는 부르주아적인 범주였고, 따라서 채용되기보다는 폭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나는 맑스의 착취이론이, 그리고 이윤을 도둑질로 개념화하는 주목할만한 자주 눈에 띄는 구절을 설명하는 것은 오직 그가 정의의 이론을 갖고 있었다고 가정해야만 이치에 닿게 된다고 생각한다. 핵심적인 원칙은, 각자는 기여에 따라-이 기여는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가정하고-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불행히도 노동착취이론은, 노동가치이론을 무효화하는 이유와 동일한 이유 때문에, 매우 부실하게 규정되어 있다.

노동이 이질적일 때, 기여는 공통된 척도로 잴 수가 없다. 더욱이, 그 원칙을 노동시간에 의거하여 재정식화하려 해도, 서로 다른 노동은 상이한 비효율을 갖고 있고 따라서 상이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는 문제점에 부딪힌다. 그리고, 노동가치이론을 평가하면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의 상이한 형태를 집계하고 비교하는 이 모든 문제들을 무시한다고 쳐도,

---

1) 역주: 속류 경제학이 저지르는 오류라고 맑스주의자들이 본 것은 가치가 더 본질적임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치가 더 본질적인 것이라면, 가치로서 가격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맑스주의자들은 잉여 가치 극대화나 잉여 가치율에 대한 설명의 기초로서 현상인 '가격'을 사용하여 설명을 시도했다. 본질인 '가치'가 설명의 기초가 되지 못하고 설명의 대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보이지 않는' 잉여 가치의 법칙에 대한 깨질 수 없는 독단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보이는' 가격 자료를 사용하여 그럴듯하게 꾸미는 작업 이상의 분석적 유용성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기여 원칙은 윤리적으로 매력적인 원칙이 아니라는 점을 보일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착취하는, 직관에 반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여가를 선호한 나머지 그들이 소유한 자본마저 활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부한다면 말이다. 이러한 논증은, 착취가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만한 표준적인 사례가 존재하는 것은 기여의 원칙이 아닌 다른 어떤 원칙 때문임을 보여준다. 또한, 상이한 노동 공급 곡선 때문이 아니라 상이한 자산 때문에 착취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저축을 한 덕분에 자기 혼자 활용할 수 없는 양만큼의 자본을 축적했을 수도 있다. 만약 이들이 즉각적인 소비를 더 선호한 사람들에게 이 자본을 대부하여 더 많은 소득을 올린다면 누가 이것을 반대할 수 있을 것인가? 초기에 평등한 자산이 주어진 상황에서 자유로이 체결하는 일은 상호 이익이 되는 계약을 기여 원칙에 의거해 비난될 수 없다.

나는 이러한 반대 논증이 현재의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논증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을 현대 자본주의에 적용하면 자산의 불평등이 소비하기보다는 저축한 자발적 선택 때문에 대체로 생긴다는 잘못된 신념에 빠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반대 논증은 맑스의 견해에 대한 정면 반박이 되지 못한다. 맑스는 소외를 극복한 사회에서는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자발적으로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그 반대 논증을 기각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은 자아 실현이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반대논증은 적어도 실현가능한, 비유토피아적인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자는 모든 제안에 대해서는 반박의 온전한 힘을 갖는다. 알렉 노브가,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 경제라는 책에서, 와실리 그로스만(Wassily Grossman)의 소설에서 인용한 다음 구절을 보라.

나는 유년기 때부터, 누구나 들러 물건을 살 수 있는 가게를 여는 것을 꿈꿔 왔다. 그 가게에는 스낵바가 있어서, 손님들은 원한다면 소고기를 좀 먹고 술을 마실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싼 값에 말이다. 나는 손님들이 동네에서 정말로 직접 만든 음식을 먹게 하고 싶다. 구운감자! 마늘이 들어간 베이컨! 소금에 절인 양배추! 손님들은 입맛 다시기용으로 소 골수부터 음미할거야……. 보드카와 소 골수, 물론 빵과 소금도. 의자는 가죽으로 되어 있어야 되, 그래야 이가 들끓지 않지. 손님들은 앉아서 편안히 쉬면서 접대받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소리내어 말했다면 시베리아로 직행했을 거야. 하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살마들에게 무슨 해를 입힌단 말인가?

정말 무슨 해를 입힐까? 만약 그가 노동자 협동조합에서 일하기보다는 임금을 받으며 그 가게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노동자들을 몇 안되는 웨이터와 요리사로 고용했다손 친들, 누가 피해를 입겠는가? 사회주의 경찰이 개입해서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그러한 계약을 금지해야만 할까?

셋째로, 맑스는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그리고 불필요하게 비합리적이고 낭비적이라는 이유로 비난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본질적으로 낭비적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시장 기제는 경제적 의사결정을 조정하는 데에 매우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시장 기제는 경제 위기를 빈번하게 일으키고, 또 그런 위기의 가능성을 언제나 영구히 안고 있다. 위기 때에 자본은 놀게 되고, 노동자는 할 일이 없어지며, 생산된 상품은 유효 수요를 찾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자본주의의 인센티브 체계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기준-노동시간의 최소화라는 기준-이 채용되었을 때보다 다 기술 변화를 덜 가져온다. 자본가들은 노동시간에 지출되는 임금을 최소화하기를 원할

뿐, 노동시간 자체를 최소화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어떤 기술 혁신이 노동시간을 줄여주면서, 동시에 채용되는 노동인원을 늘리게 된다면, 아마 자본가들은 그 기술 변화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 중요성을 과장하긴 했어도 이러한 점들이 비효율을 낳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측면에서 맑스는 옳았다. 어느 경우든, 물론, 이러한 결점들이 없으면서도 자본주의의 다른 장점들-특히 새로운 기술을 찾으려는 가차없는 동기부여라는 주목할 만한 장점들-은 여전히 갖고 있는 대안적인 체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보여져야 한다. 이 점이 보여질 수 없는 한, 자본주의의 본질적 낭비성은 참아야만 할 대상이다. 맑스는 새로운 기술을 찾고 그것을 선별하는 기준과, 기술을 사용하는 효율성 측면에서 현재의 생산관계보다 우월한 다른 생산관계의 도래가 임박했다고는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체계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체계라는 점에서 비합리적이다. 자본주의는,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훼손하는 수단을 통해서만 경제적으로 생존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합리적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윤율 저하 경향에 직면하여 자본가들이 개별적으로 채택하는 수단은 집합적으로 그러한 경향을 강화시킨다. 이윤율 저하 이론이 피상적인 설득력을 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좀 더 자세히 검토해 보면, 사실은 논리가 체처럼 줄줄 새고 있다. 그 이론은 틀린 가정-노동절약적 기술의 장기적 우세-으로부터 출발하여 계속 그 가정을 이용하여 논증을 한 결과 이윤율 저하 경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대체로 보아 맑스는 자본주의가 낮은 수준의 소비라는 의미에서, 다소간 더 일반적으로 말해 낮은 생활 수준이라는 의미에서 비참함을 증가시킨다는 이유에서 비난하지 않았다. 그가 영국 노동계급의 시벨건 분노에 대해 쓴 것은 사실이나, 그들의 생활 수준이 하락하고 있다고 시사하지는 않았다. 그의 비교 기준은 가상적인 것이었지, 실제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존재하는 자본주의 노동자의 운명과, 보다 합리적으로 조직된 생산관계 하의 노동자의 운명을 비교하였다.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태는 역사 전반을 거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벗어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바로 인간 힘의 온전하고 자유로운 사용이 모두에게 가능하게 된 사회가 출현하였을 때 그러한 사태는 비로소 스캔들이 된다. 이와 유사하게 자본주의 사회가 기술 변화와 관련하여 최적을 밀둔다는 주장은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 반대로, 이윤율 저하 때문에 자본가들은 훨씬 더 광적인 페이스로 혁신을 시도하게 된다. 맑스의 논점은 다른 체제 하에서는 그 혁신이 더 잘 수행될 것이며 그러한 사회로 가는 조건을 자본주의 자체가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소외, 그리고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모순”은 실제 있는 것과 가능한 수준 사이의 간극으로 정의된다. 소외는 크게 보아, 생산력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초로 규정된다. 그리고 모순은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기초하여 규정된다. 실제로, 이 두 가지 현상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소외를 없애므로써, 사회구성원들은 창조적 능력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몇몇 사람들은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과학이나 기술직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것이기에, 유례 없는 생산성 성장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바이지만, 이 모든 일은 자본주의에 의해 창출된 기술적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 자본주의는 인류가 쓰고 나서 더 이상 필요치 않을 때 차버리는 사다리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과 고발은 제한된 두 계급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본가와 노동자만이 자본에서 중요성을 가지는 유일한 행위자들이다. 농업계급-소농과 대지주-은 자본III권 말미에 짧게 등장할 뿐이다. 장인 계층과 뿌띠 부르주아지는 일반적으로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영자와 관료 계급도 보이지 않는다. 다른 저서들에서 맑스는 이 이론을 배태하는 더 풍부한 사회적 틀에 대해 쓰고 있다. 프랑스 정치에 대한 잘 알려진 저서

는 이 목적을 위해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저서는 가장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영국에 대한 수많은, 그러나 보다 짧은 논문들을 살펴봄으로써 보충을 해줘야 한다. 이 저서들을 다 같이 검토해 보면,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에 대한 이론을 구성할 수 있다.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일종의 독점적인 권력을 쥐게 된 계급이 국가를 운영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중앙집중화된 관료계, 영국에서는 토지 소유귀족들이. 1848년 독일 혁명 이전과 그 와중에 맑스는 자본가 계급이 직접 권력을 취하여 노동자와 부르주아 간에 노골적으로 계급 갈등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믿었고 희망했다. 그의 기대가 좌절되었을 때, 그는 경제적으로 지배적인 계급이 정치 영역에서 두 번째 지위 정도로 만족하는 이유를 설명해야만 했다. 맑스는 이 설명을 그가 바랬던 전쟁, 즉 노동자와의 전면전을 부르주아들이 피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에서 찾았다. 노동자들의 에너지와 투쟁정신을, 자본과 정부라는 두 개의 적에게로 분열시킴으로써, 부르주아는 그들이 단기적으로 희생하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장기적으로 얻을 것이라고 계산했다. 비록 맑스가 분할지배 메커니즘에 의존한 설명을 이따금씩 하기는 했지만, 노동계급에 대한 지배의 주요 패러다임은 분할지배 전략이 아니다. 오히려 주요 패러다임은 두 개의 전선(two-front war) 전략이다. 주요한 적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에 노동자들을 혼란시키고 계급 갈등의 선을 흐릿하게 만드는 전략 말이다.

경제와 정치 사이에서, 계급 투쟁은 중개적인 요소<sup>2)</sup>다. 계급은 경제 행위에 의해 정의되고, 그들의 공통된 경제적 이익에 의해 뭉치나, 이들 이익은 조만간 정치의 영역을 향해야 한다. 분석적으로는 이 과정을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계급 의식의 형성-계급 연대의 창출과 계급 조직에 그 연대감을 제도화하는 것-이 먼저 존재한다. 객관적으로 정의된 계급이 응집하여 집단적 행동을 하는 일은 다양한 구조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이 구조적 요소에는 계급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 연결망의 밀도, 계급 이동의 비율과 문화적 동질성의 정도 같은 것들이 있다. 맑스는 특히 소농들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소농들이 계급 의식을 획득하는 일이 구조적으로 막혀 있음을 논했다. 소농들은 루이 보나파르트의 지지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긴 했지만 그들 자신의 고유한 이익을 증진시키는 조직을 건설하지는 못했다. 두 번째로, 계급 동맹의 형성 단계가 있다- 집단 행위자로 발전된 계급들 간의 동맹-. 두 전선 이론에 따르면, 자산 계급 사이에는 무자산 계급에 대항하여 계급 동맹을 맺으려는 경향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비록 초기에는 두 산업 계급이 서로 전(顛)산업계급에 대항하여 서로 동맹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말이다. 그러나 맑스는, 이 반노동자 연합전선이 할 수 있는 일은 중국적인 갈등과 붕괴를 오직 지연시키는 것 밖에 없다고 믿었다. 자본가들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어떤 정치적 전략도 그들을 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맑스는 국가가 개입하여 위기를 관리할 가능성, 예를 들어 수효를 진작하고 다른 조절 수단들을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맑스의 자본주의 분석의 최종 차원은 국제적인 것이다. 그는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다른 생산양식을 자본주의로 바꾸는 성향, 즉 자본주의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로, 상품, 인력, 자본과 사상의 전파를 통해 퍼져 나가는 성향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맑스는 전세계적 자본주의 발달에서 선발 국가와 후발 국가간의 차이를 분석 하였다. 그가, 트로츠키가 나중에 그랬듯이, 불균등 결합발전을 이론의 초석으로 삼았다고 말한다면

2) 역주: 중개변수는 매개변수와 다르다. 매개변수는 단지 본질적 원인 X와 결과 Y 사이를 이어주는 고리에 불과하며 Y를 결정짓는 고유한 힘을 갖지 못한다. 이 경우 X가 같으면 Y는 언제나 같다. 반면 중개변수는 X라는 원인을 받아 그것을 Y로 이어주는 과정에서 그 자신의 고유한 힘을 발휘한다. 따라서 X가 동일하여도 중개변수 M이 다르면 Y는 달라진다.

틀린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맑스의 저서에는 이러한 견해의 무시할 수 없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그의 삶의 각 시기에 이 견해는 상이한 형태를 띠었다. 1850년 즈음에 그는 유럽 대륙 중 후발 자본주의 국가에서 먼저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후, 자본주의를 능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산주의 체제가 가능한 유일한 나라인, 영국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아이디어를 그냥 한번 생각해 보았다. 이러한 전개는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혁명이 전파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 삼십년 후에 맑스는 서유럽으로부터 혁명적 동유럽으로 기술의 보급될 것이라는 희망을 표시하였다. 두 가지 개념 모두 성공적인 공산주의 혁명은 지속가능한 공산주의 체제와는 다르고, 공산주의 체제가 현실적인 가능성이 되려면 기술을 배우고, 빌리고, 전파시키는 과정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주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론의 초창기 판은 어느 정도 호소력을 갖고 있지만, 후기판은 본질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그 본질적인 이유로, 정치사상이 전파되는 속도는 기술이 전파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공산주의

*자본*은 몇 안되는 행복한 자들을 위해, 몇 안되는 행복한 자 중 한 명이 쓴 것이다. 그 책은 교육 받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는다. 맑스는 그의 독자들이 라틴어와 그리스어 그리고 유럽의 주요 언어를 알고 있다고 가정했다. 또한 독자들은 정치경제학은 물론 철학에도 조예가 깊어야 하며 세계 역사와 당시 정치 사안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어야만 한다. 더군다나 독자들은 심지어 상당히 위장된 형태로 숨겨진 문자적 암시를 알아채야만 했다. 자본은 저자의 능력을 극한까지 밀어 붙였던 결실이었던 만큼, 독자들의 정신도 한계까지 활용할 것을 요구하는 책이다. 그 책은, 다른 말로 하면, 창조성의 극단적 위업이다. 미래에 도래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이러한 수준의 책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아니, 모두가 그에 비견할만한 책을 쓸 수가 있을 것이며 실제로 그렇게 하는 데에 대부분의 시간을 쓸 것이다.

이러한 묘사는 과장처럼 들릴지 모르겠고, 맑스에 대한 몇몇 해석은 실제로 과장이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이 묘사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담고 있다. 맑스는 19세기 중반 노동자들의 비참하고 수동적이며 식물인간 같은 모습에 질렸다. 작업장에서 그들은 작동시키고 있는 기계의 단순한 부속물이었다; 집에 돌아오면 그들은 육체와 정신의 에너지가 너무나 고갈되어 어떤 적극적인 삶도 영위할 수가 없었다. 기껏해야 그들은 수동적인 소비의 쾌락이나 즐길 뿐이었다. 맑스는 에너지가 넘치고 지속적으로 창조적이었으며 혁신적인 사람이었다. 그 자신도 물론 마쳐야만 하는 일이 있긴 했지만 그 시대 노동자들과는 정반대의 극단에서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창조적 활동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쁨, 그리고 긴장 상태에 있다가 그 긴장 상태가 해소되는 심오한 즐거움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을 위해 좋은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삶이 더 이상 조그만 규모의 특권층에게만 제한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였다. 창조적 일을 통한 자아 실현이야말로 맑스 공산주의의 핵심이었다.

맑스의 사상에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롭고 두고두고 남을 점이라고 나는 믿는다. 비록 그 자신은 오직 지적인 성취만을 언급했을 뿐이지만, 그것에만 창조적 활동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훌륭한 요리사나 목수가 되는 일 또는 좋은 자수품을 만드는 일은 동일한 종류의 즐거움을 낳는 목표가 된다. 정말로, 푸시핀 게임을 하는 일은 시를 읽는 일만큼이나 보상을 주는 일일 수 있다. 조야한 즐거움과 세련된 즐거움 사이의 밀의 구분은, 그런 점에서,

논점을 벗어난 것이다.<sup>3)</sup> 만약 우리가 맑스와 창조적 정신을, 윌리엄 모리스<sup>4)</sup>의 손노동의 창조성으로 보충한다면 보다 균형 잡힌 견해가 나올 것이다. 맑스 자신도 이 균형 잡힌 견해에 대해 아마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았으리라. 그러한 상태를 가능한 높은 정도로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고도로 가치있는 정치적 과업이다.

그런데 이 ‘가능한 높은 정도’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가? 자아실현이라는 이상이 충족될 수 있는 정도에 본질적인 한계라는 것이 있는가? 자아실현이라는 이상은 맑스가 추구했던 다른 가치들과 부딪히거나 또는, 인간 본성과 사회에 대한 변할 수 없는 사실들과 모순되는가? 다음에 열거할 반대 의견들은 그 이상을 분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 실행될 수 있는 형태와 한계에 대해 필요한 성찰을 불러 일으키려는 의도로 제시된 것이다. 맑스의 비전을 실현하려고 했던 현존하는 사회주의의 실패를 동정적으로 설명하는 문구를 인용하자면 ‘성찰하지 않는다면, 최선의 이상은 쉽게 선의 적으로 변질된다.’

맑스는 명백히도; 공산주의의 특징은 개인들의 온전하고 자유로운 자아실현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주장을 독해하는 한가지 강한 방식은 다음 두 가지를 함의한다. (a) 각 개인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모두 갖고 있다. (b) 각 개인은 그 능력들을 모두 발전시키고 사용한다. (a)는 극단적으로 유토피아적이다. 왜냐하면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능력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a)를 수정한다고 해도 (b) 역시 매우 설득력이 없다. 깊이 있게 성취하는 일과, 다양한 일을 넓게 성취하는 것 사이에는 맞교환 관계가 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어느 것 한가지를 택하여 노력했을 때 모두 다 높은 수준으로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동시에 모든 분야에서 수준 높은 성취를 이룩할 수는 없다.*

3) 역주: 푸시핀 게임은 19C 영국의 어린이들이 즐기던, 핀을 서로 넘어뜨려 승패를 결정짓는 게임이다. 벤담은 그의 공리주의의 기초로서 양적 쾌락주의의 정당성을 선명하게 내세우는 표어로서 ‘쾌락의 양이 같다면’ 푸시핀 게임과 시의 지위는 동등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이 문구는 오히려 벤담을 부당하게 공격하는 화살이 되어 다시 돌아왔다. (벤담의 쾌락 공식에 의해도 시를 즐기는 쾌락의 다산성과 지속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시는 푸시핀 게임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이다) 밀은 ‘질적 쾌락주의’를 도입하면서 양적 쾌락주의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고 했다.

4) (역주) 에식스주(州) 출생. 말보로 칼리지를 거쳐 옥스퍼드대학 엑시터 칼리지(1833~1855)에서 공부하였다. 여기서 번 존스와 친구가 되고 러스킨의 사상에 접했으며, 특히 고딕 건축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다. 처음에는 건축가가 되려고 스트리트의 사무소에 들어갔으나(1856), 로세티의 조언에 따라 회화로 방향을 바꾸었다. 1850년대 말에는 회화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생활환경의 미화를 뜻하여 1861년 친구들과 모리스마샬-포크너 상회(商會)를 설립, 벽면장식으로부터 스테인드글라스·가구·금장(金匠)에 이르는 모든 실내장식 미술을 다루게 되었다. 1875년부터는 모리스가 단독으로 경영하게 되어, 모리스 상회로 개칭하였다. 1877년 처음으로 ‘장식예술’이라는 강연을 하고, 또 고대건축보존협회를 설립하는 등, 사회활동도 벌였다. 그는 시인으로서도 이미 《제이슨의 생애와 죽음》(1867) 《지상의 낙원》(1868~1870) 등으로 이름이 나 있었는데, 문학에서의 유태주의적(唯美主義的) 경향은 공예가로서의 모리스의 중세 예찬과 교착하면서, 점차 19세기 문명에 대한 비판이라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기계문명의 해독을 입고 노동의 기쁨을 상실한 시대의 변혁을 위해서 한때 정치활동에도 투신하였다(1883). 이 시기의 문예작품으로는 《유토피아 소식》(1890)이 있다. 공예 방면의 일도 여러 영역에 걸쳐서 계속되었다. 그의 일 자체가 새로운 공예의 길을 개척했다고는 할 수 없으나 1880년대에 들어 모리스의 영향으로 각종 공예가 조직이 형성되어, 근대 디자인 운동의 발단이 되었다. 이 움직임을 ‘아츠 앤드 크라프트스 운동’이라고 한다. 만년에는 해머스미스에 켈름스콧 프레스를 설립(1890), 인쇄·제본사업에 몰두하였다. 여기서는 켈름스콧판(版) 초서로 알려진 《켄터베리 이야기》 등이 인쇄되었다. 모리스는 예술 활동과 장인 활동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맑스의 견해에 대한 약한 독해는, 자아실현의 온전성보다, 자아실현할 수 있는 자유를 강조한다. 즉 공산주의 사회에는 각 개인이 특정한 활동을 골라 자기실현하려는 욕구를 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독해에 따른 견해는 앞의 견해보다 더 설득력이 있기는 해도, 이 역시 이후에 설명할 사회적 조정의 어려움이라는 문제에 부딪힌다.

(2) 자아실현이라는 이상은 대단히 분투를 요하는 것이다. 이 이상은 혹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닐까? 공산주의 사회는 소비의 수동적 쾌락을 더 선호하는 사람을 배제하고 낙인 찍을 것인가? 그래서 푸시핀 게임을 하거나 시를 읽는 사람들을 경멸할 것인가? 창조적 작업을 촉진시키는 일, 즉 창조적 작업의 결실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더 손해보게 만드는 자원 배분을 통해 불공정한 대우를 할 것인가? 나는 그런 혐의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수동적인 태도가 치유될 수 있는 사회적 인과율의 결과라고 확신하지만, 그러한 태도가 자율적인 선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전혀 확신할 수 없다. 시간은 넘치고, 정력이 충만하며 돈도 제약이 없고 자공심까지 갖추고 있다 해도 과연 모든 사람들이 소비보다는 창조적 활동을 자발적으로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실제로 관련된 개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결정해 줄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은 분명히 자아실현이라는 이상을 실현하는데 얼마간의 주의를 요하게 한다.

(3) 자아실현이라는 아이디어는 쉽게 나르시시즘이나 자아탐닉으로 타락할 수 있다. 자아실현을 촉진시키는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아실현을 할 수 있을지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실제로 그들 앞에 놓인 일에 대해서 생각할 뿐이다-책을 쓰거나, 자수품을 만들거나 체스 게임을 한다거나. 그러나 진지함을 가지고 집중하지 않으면, 성취에 부수하여 얻어지는 자아실현의 기쁨을 맛볼 수 없다. (이에 더하여, 당연한 얘기지만, 때때로 실제로 성공도 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자아실현을 계획하는 일은 자멸적(self defeating)인 일이 될 수도 있다. 자아실현이라는 이상을 사회의 핵심 가치로 고취시키게 되면 오히려 자아실현이 덜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작업장에서 참여를 위한 개혁운동에도 어느 정도는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참여가 가치롭기 위해서는, 참여 자체가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좋은 결정을 내리거나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점이 종종 망각된다.

(4) 현대 산업 사회에서 일은 맑스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종류의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제한된 영역만을 제공해 줄 뿐이다. 근대 산업 사회의 일은 반복적일 수도 아닐 수도 있고, 단조롭고 지루할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언제나 조정과 감독이라는, 일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조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 어디에서나 사실이다. 대안적인 기술의 발전이 아마도 이러한 진술이 지난 세기에 들어맞는 것보다는 앞으로 덜 들어맞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아예 거짓으로 만들 수는 없다. 다른 한편으로, 작업 상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합한 맥락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외부적 규율 그 자체가 종종 자아실현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생산품을 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정신을 놀랍도록 집중시킨다. 이와는 반대로 일을 사적으로 집에서 아무런 외부적 추동도 받지 않고 하게 되면 아마추어 도락(dilettantism), 즉 앞서 언급한 자아탐닉과 동시에 나타나는 상태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

(5) 맑스는 공산주의를 자본주의와 전자본주의 사회의 종합, 즉 자본주의의 개인주의와 전자본주의 사회의 공동체적인 특성을 조화시킨 종합으로 보았다. 개인의 자아실현은 공동체를 위한 창조적인 일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창조적 자아실현에 대한 극단적인 강조는 공동체성이라는 가치와 갈등을 빚게 된다. 생산이 공동체를 위해 이루어진다면, 몇몇 구성원들은 적어도 어느 시간 동안 만큼은, 수동적인 소비의 쾌락에 탐닉해야만 한다. 즉 다른 사람들이 자아실현하는 일을 통해 만들어낸 결실인 생산품을 소비해야만 한다. 창조에 대한 극단적인 강조와 온전히 양립가능한 공동체의 형태는 작가들의 공동체일 것이다. 소설가는 대중으로부터 자기 작품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의 동료들로부터의 반응은 여전히 열렬히 기다릴 수 있다. 과학이야말로 소비자는 없고 단지 동료만이 존재하는 영역 중 하나이다. 그런데 과학은 현신보다는 대항, 경쟁, 그리고 자기 주장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헤겔의 문구를 쓰자면, 과학은 지성의 영역(das geistige Tierreich)이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러한 상황은 불가피하다. 자아실현은 경쟁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소비자들, 청중들, 그리고 대중들이,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찾는 종류의 작가 공동체에서 발견되는 온전한 감식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자본주의에 대한 비전에서 맑스는 자본주의에 만연해 있는 광포한 자기이익 추구 개인주의와 대조하기 위하여, 공동체에 대해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유인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개인의 기여와 (물질적) 보상을 연결시킬 필요가 없으리라는 점을 보여주길 원했다.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회에서, 일 자체로부터 나오는 즐거움 때문에 일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생산한 것을 소비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기쁨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태도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높은 정도로 나타날 수 있다. 서로 다른 형태의 자아실현 활동은 불균등한 물질적 지원을 요구할 것이다. 발염 방사 장치를 쓰는 조각가는 요리사보다, 영화감독은 체스선수보다 더 많은 물질적 지원을 요구할 것이다. 만약 다른 모든 가치보다 우선하는 가치가 모든 사람들의 자유로운 자아실현이라면, 이러한 점들은 사회가 상이한 자아실현 활동에 상이한 물질적 지원을 해야한다는 것을 적어도 의미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매우 비싼 활동을 택한 몇몇 사람들의 자아실현의 길은 막혀 버리게 될 터이니 말이다. 그러나 만약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비싼 활동을 선택하게 된다면-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결과적으로 자아실현의 전반적인 수준은 상당히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세 가지 전제로부터 나오는데 명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i) 공산주의 사회에서 절대 풍요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전히 재화의 희소성과 기회비용이 존재한다. (ii) 맑스의 공산주의 이론에 합의된 분배 정의 원칙은 자아실현의 평등이다. (iii) 자아실현 활동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되면 사람들은 일부의 지나치게 비싼 활동을 주로 선택하게 될 것이다. 만약 첫 번째 전제가 거부된다면,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전제도 자동적으로 거부되는 셈인데), 우리는 구름이 과자로 된 나라에 살게 된다는 뜻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만약 세 번째 전제를 부정하려면, 그것은 오직, 공산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공동체를 위해, 즉 다른 사람들의 자아실현을 위해 자신의 어떤 자아실현 활동을 포기할 것을 기대해야지만 가능하다. 이것은 결국 유인 문제가 사라지면 요구되지 않는 종류의 보다 개발된 형태의 이타주의를 요구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타주의에 대한 요구는 온전한 공동체성과 함께 가는 온전한 자아실현이라는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맑스의 비전에 상치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역사 전반에 걸친 계급 사회에서, 우리는 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들의 종으로서의 인류의 자아 실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 왔다. 맑스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최고 가치는 개인의 자아실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는, 개인의 자아실현이 극대화되면 인류의 자아실현도 당연히 같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맑스가 여겼다고 생각한다. 공산주의 하에서는 그 이전 단계에서 관찰되었던 정도를 훨씬 상회하여, 탁월한 예술 작품, 새로운 과학 이론, 독창적인 발명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다른 데서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상이한 객관적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론에 대해서 의심해 보아야 한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성공적인 예술가와 학자들의 수라는 함수값을 가진, 두 변수로 이루어진 함수를 상정하자. 그 중 한 변수는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숫자일 것이고, 다른 변수는 성공적인 결과를 낸 사람들의 비율일 것이다. 이와 동일하게 좌절하고 실망한 개인의 수도 똑같은 변수를 포함하는 함수로 볼 수 있다: 즉 시도한 사람의 수를 성공하지 못한 비율로 곱한 값이 된다. 첫 번째 함수값을 최대화하는 사회는 두 번째 함수값을 최소화하는 사회가 아닐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물질적 정신적 제약 하에서 사람들이 해방됨으로써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것은 가능하다(적어도 시도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니까 말이다). 그러나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사라질 수 없다. 누가 성공할 능력을 갖고 있고 누가 그런 능력이 없는지를 미리 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예술가의 숫자를 최대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물질적 지원을 늘려서 시켜보고 난 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선별을 기다리는 것 밖에 없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거부되는 사람들의 숫자 역시 증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아실현이 자아실현의 전제조건이 되는 기술적 효율성 역시 진작시킬지 분명하지가 않다. 물건을 되도록 값싸게 만들려는 욕구는 *자아실현의 추동력*이 되는 욕구가 아니다. 경제는, 미나 진리와는 달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경제는 순수히 도구적인 가치를 가지며, 타협이 그 본질이고 완벽주의는 피해야만 하는 부문이다. 경제의 이러한 목적은 의사결정을 통해 공동체를 위하여 택하였더라면 결정되었을 것에 해당하고, 이는 앞서 언급하였던 보다 발전된 형태의 이타주의가 택했을 만한 것이다. 그러나 이 방향으로, 공산주의의 비전을 타협하지 않고서는 더 나아갈 수 없다. 첫째로, 누가 그들의 개인적 자아실현을 희생할 것인가? 어떤 과정을 통해 자아실현을 희생하는 사람들을 선별할 것인가? 둘째로, 그렇게 결정한다 해도 그 결과는 매우 흥미롭게도, 계급 사회의 결과를 닮을 것이다. 즉 몇몇은 자아실현을 포기해야만 하는 반면, 다른 몇몇은 자기를 계발시키는 것이 허용되는 상태 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술과 순수과학 분야를 선택해 자아실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도 없다. 그랬다가는 물질적 기반이 없어 아무도 자아실현을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맑스 사상에서 어떤 것이 유토피아적이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를, 적어도 무엇이 유토피아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지를 구분해 내야만 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요소들이 나에게 가장 구체할 수 없을 정도로 비현실적인 것들로 보인다. 첫째, 공산주의에서는 물질이 풍부해서 모두가 원하는 것을 취해도 재화가 남을 것이라는 주장. 둘째, 모든 개인들이 동일한 능력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타고났다는 주장. 엄밀히 말해서, 이 주장은 타고난 유전적 결함이라는 어떤 핸디캡도 없으며,

가족을 따라 전해 내려온다고 종종 이야기되는 수학이나 음악에 대한 천부적 소질 같은 특별한 재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가정들을 함께 모으면, 공산주의 사회에서 부족한 것은 오직 시간이다-사람이 영생을 살지 않는 한 이 시간은 공산 사회에서 더 부족해질 것인데, 이 예상은 다른 것들만큼 설득력이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다소간 덜 유토피아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거의 확실히 거짓인 생각들로써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인류가 더 높은 형태의 이타주의를 발전시켜서 사회를 위해 물질적 복지 뿐만 아니라 개인적 발전도 기꺼이 희생할 것이라는 생각. 둘째로, 개인이 그의 잠재적 능력을 그 어느 것 하나에 집중(이것은 구체적 능력의 계발이 될 것이다)하지 않고서도, 온전히 모두 계발할 수 있다는 생각. 셋째, 사회적인 의사결정이 갈등 없이 만장일치의 승인이나 선출로 이루어지리라는 관념. 마지막으로 중앙 계획에 의해서 경제적 행위의 완전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견해. 이 모든 가정들은, 잘 알려진 이론과 경험을 통해 진리라고 알려진 가정을 바꾸는 어리석도록 어려운 일을 마치지 않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들 중 한 두 가지 가정은 유효한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 그 가정들을 무효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이론과 경험들은 소프트한 과학-심리학, 경제학, 정치학-으로부터 나온다. 반면에 첫 번째 가정은 보다 엄밀한 과학인 물리학과 생물학으로부터 나오는 사실에 어긋난다. 그러나 첫 번째 가정 외의 가정들조차도, 이들을 유효한 가설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사회과학에 대한 지나친 회의주의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확실히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래에도 무한정 실현 불가능하다고 믿을 근거는 거의 없는 제안들이 있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의 첫단계에서 사용하고 맑스가 제안한 기여에 따른 보상원칙은 무한정 실현 불가능한 것만으로 볼 수 없다. 능력을 쓰는 일 자체가 본질적으로 즐거운 일이 되어, 노동을 끌어내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적 보상이 지금처럼 현저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맑스의 견해에는 진실이 많이 담겨 있다. 오늘날 희소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동을 철회하겠다는 위협을 통해 매우 많은 보상을 뽑아 낼 수가 있다. 그렇지만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능력을 계속 사용할 것이다. 또한 몇몇 만족할 줄 모르는 필요들, 예를 들어 지위 자체에 대한 수요는 본질적으로 패배자를 낳지 않는 사회로의 변화 덕택에 보다 덜 현저해질 수 있다. 이런 일이 절대적 풍요를 만들어내지는 않겠지만, 보다 건설적인 용도에 많은 자원들이 사용될 수 있게 만들 것임은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유인 구조가 주어졌을 경우 소규모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탈중앙집중화된 대안적인 기술이 보다 체계적으로 개발될 것이다.

매우 대체적으로 보아, 가장 유토피아적인 제안은 상대적으로 맑스의 문헌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온건하게 유토피아적인 제안은 이보다는 더 자주 발견된다; 그리고 가장 합당한 제안은 다시금,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진술은 아마도 매우 거친 직관적 평가에 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관련된 문헌이 너무 적은데다가 그나마 있는 문헌의 진술도 심하게 애매하고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느 경우에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우리는 실마리를 특정한 문헌적 증거에서가 아니라, 그 문헌 아래에 깔려 있는 보다 일반적인 고려 사항들을 살펴봄으로써 찾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실제 이뤄지는 자아실현 결과가 아니라 자아실현의 물질적 선결조건이라는 의미에서 평등한 자아실현이라는 일반적인 사상을 지지할 수 있게 된다. 작업장에서의 자율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자아실현의 한 형태이다. 현대 산업의 대규모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율성은 주로 집단적 수준에서, 노동자 협동조합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맑스가 바랬던

것보다는 덜 나아간 진보다. 중앙계획은, 자율성과 효율성 모두와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각된다. 그 대신에 어떠한 정치적 개입과 규제의 형태를 실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갈등이 존재하는 정치 과정이 들어선다. 이는 맑스의 비전이 호소하는 바의, 궁극적으로 유기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회의 성격과는 매우 거리가 먼 것이다. 그는 공산주의를 마치 신체의 세포가 공동선을 위해서 협력하듯이 개별 생산자들이 전체의 견해를 자신의 견해에 반영하는 자발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는 사회로 생각하였다. 그러한 사회는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사회가 가능하리라 믿는 것은 대재앙만 불러 일으킬 것이다. 맑스가 그의 공산주의에 대한 접근에서 *윤리적* 개인주의를 택하긴 했지만, 어떻게 실제 조직이 개인의 가능성과 한계를 고려해야 할 지는 알지 못했다. 그가 이를 깨달았다면-우리가 오늘날 깨달아야만 하는 것처럼- 목표를 낮게 잡았을 것이고 그의 원래 목표에도 크게 다가갈 수 있었을지 모른다.

## 혁명

공산주의의 도래는 두 가지 조건을 요구한다. 첫째, 생산력은 공산주의가 생존가능한 정도의 수준까지 발전되어야 한다. 공산주의가 즉각적으로 또는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를 대신할 정도라는 의미에서 말이다. 둘째로 노동자(그리고 아마도 그 동맹계급들은) 정치권력을 잡고 공산주의적 생산관계를 건설해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다시 두 개의 하위 조건으로 세분화된다. 노동자들은 정치권력을 잡을 기회가 있어야만 한다. 즉 지배계급이 노동계급을 힘으로 억압할 수 없어야 한다. 또한 노동계급은 권력을 얻으려 노력할 동기가 부여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 마지막 조건은 다시 두 개의 조건으로 나뉘어진다. 노동자는 자본주의 하의 그들의 삶에 좌절하거나 그것을 불행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계급은 공산주의가 존속가능한, 더 우월한 대안이라고 믿고 있어야만 한다. 맑스는 이 모든 조건들이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어떻게 다 같이 충족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혁명이론을 내어 놓은 적이 없다. 그 몇몇에 관해서는, 그의 논변을 재구성하는 것이 상당히 쉬운 데 비해, 다른 몇몇은 여전히 재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악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첫 번째 이슈는 가장 명료하게 밝혀지는 것으로서 공산주의의 객관적 전제 조건에 관한 것이다. 맑스는 자본주의가 여러 발달 단계를 거치다가 어느 단계에 이르면, 공산주의 생산 관계를 채택해야만 생산력이 가장 더 잘 발전하는 조건을 창출한다고 믿었다. 이 견해가 특별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견해를 노동자들이 채택하게 될 경우 혁명적 효능을 가질 수 있다. 혁명적 효능성이라는 이슈는 조금 있다가 다루겠다. 여기서 우리는 이 논변이, 무르익지 않은 혁명, 즉 생산력이 충분히 발전되기 전에 권력을 잡는 일이라는 문제와 관련 있다는 것만 주목하고 넘어가면 된다.

맑스가 혁명의 기회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잘 알려진 한 견해에 따르면, 혁명은 자본주의 국가가 재정적 곤란과 함께 군사적 패배를 겪은 결과, 지배계급들이 혁명에 저항하려는 능력과 의지를 일반적으로 잃었을 때 실현가능하다. 맑스에게 이에 상응하는 이론은 없다. 이와 가장 가까운 논의는 아마도 이윤율 저하 이론일 것이다. 맑스가 비록 명시적으로 말한 바는 없다 할지라도, 이윤율 저하는 궁극적으로 투자 정지에 이르게 되고 지배계급이 체제를 방어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일에 이를 것이라고 추론할 수 밖에 없다. 1850년에 발표된 그의 몇몇 시나리오에서 맑스는 프랑스 혁명때와 같은 혁명 전쟁의 역할을 시사하였고, 그 이후 계속 이 논점을 채용하였다. 어느 경우든, 이런 종류의 객관적

어려움은 혁명을 위한 필수적 조건을 형성한다. 더 우월한 질서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만으로는 지배계급의 사기를 꺾지도 못하고, 내가 짧게 설명할 것처럼, 노동자에게 혁명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지도 않는다.

혁명에 대한 동기 부여의 문제는 핵심적 이슈다. 나는 자본주의에 대한 세가지 주요한 비판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변화에 필요한 의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공산주의라는 대안 역시 살펴볼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밀고” 공산주의가 “당기는” 과정이 동기 부여를 낳는 상호작용을 불러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로, 혁명의 동기로서 소외에 대해서 살펴 보자. 여기서 주관적 소외 개념을 택하느냐, 객관적 소외 개념을 택하느냐가, 즉 소외를 의미의 결여를 감지하는 일로 파악하느냐, 아니면 의미를 감지하는 일의 결여로 파악하는가가 중요한 차이를 가져온다. 다소간 불명확한 해석상의 이슈와는 독립적으로, 그 이론의 객관적인 소외 개념으로 그 이론을 견지할 만한 선험적인 좋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다. 공산주의에 대한 맑스의 비전은 자본주의와 총체적으로 다른 삶의 방식을 대변한다. 그것은 더 높은 소비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수동적인) 소비의 삶에서 총체적으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능동적인 창조의 기쁨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 봐야 하는데, 자본주의에서는 그런 경험을 할 기회가 소수에게만 주어진다. 공산주의의 매력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미 그 사회의 기쁨을 맛봤어야만 한다. 또는 다시금: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양 측면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노동자들은 오직 한 측면 만을 알고 있다. 그들이 공산주의가 기술적으로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들인다면, 증가된 소비를 가져다 주는 수단으로 공산주의를 바랄지도 모른다. 그러나 왜 소비로부터 창조적 행위로 이동하는 일이 더 높은 기술적 효율성을 나올 것이라고 기대해야 하는가? “당신은 당신 삶에 무엇이 빠졌는지 모른다” 노동자가 대답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당신은 우리가 그것을 욕구하리라 기대하는가?”

다음으로, 정의가 갖는 동기 부여의 힘을 살펴보자. 맑스가 정의의 이론을 가졌던 가지지 않았던, 맑스는 정의가 행동을 촉진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흥미를 끄는 질문이다. 문헌에 나타난 증거는 애매하지만, 그 중 몇몇은, 부정의한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 (맑스가 말했듯이) 파멸의 조종을 울릴지도 모른다. 나의 견해로는 최근의 몇 안되는 세기 동안의 정치, 사회, 경제적 역사는 이런 관점으로 혁명의 동기를 이해하는 것과 맞아 떨어진다. 이 진보의 역사는 평탄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민주주의 증가되는 과정이었고, 맑스가 이해한 바로의 공산주의를 향한 곳에는 이르지 못한 그런 역사였다. 이를 움직이는 동력은 자율적 통치라는, 거의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성이었다. 한번 정식화되고 선전되고 나자, 그 관념은 민주주의의 반대자들에게조차 저항하는 일이 가망 없는 퇴행으로 보일 정도로 위력을 발휘했다. 전술은 변화의 시기와 형태를 결정하긴 했지만, 변화의 궁극적인 불가피성에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정의는 노동자들에게 동기 부여를 할 뿐만 아니라, 지배자들의 의지를 꺾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몇몇 사람들은 이 논변이 맑스에게 합당하게 돌려질 수 있는 견해를 너무 벗어난다고 반대할 것이다. 나는 그러한 반대에 동의하지만, 그것은 여기서 그 논변을 드러내 보이는 주된 관심사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견해 자체에 대해 반대할 것이다. 그 견해가 규범적 개념에 과도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동기의 형성 과정에서 즉각적인 이익이 갖는 비중에 대해서는 불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이유로 말이다. 나는 보다 시급한 관심사안과 정의가 일치되지 않는 한, 사람들이 정의를 이유로 혁명을 할 가능성이 없

다는 데에 동의한다. 혁명은 비용이 많이 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따라서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에서만 촉발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혁명적인 것은 아니며 보다 점진적인 변화는 그러한 규범적 동기 부여에 의해 고양될 수 있고 또 고양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의 비효율성이, ‘자본주의를 제거하는 동기’를 부여하는지 살펴보자. 비효율성은 그 본질상 가상적 비교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되는 것이다. 지금보다 더 잘 조직되면 효율성이 얻어진다는 식이다. 이러한 의미의 가상적 효율성은 현재에 “만족하고 있는” 상황과 양립 가능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지간한 정도로 살면 “만족”을 느낀다. 만족스러운 지금의 실재하는 상황과, 가설적으로 더 우월한 대안의 전망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상황을 택할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전망이라는 것은 항상 어느 정도 불확실하기 마련이다. 공산주의 이론가들은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정태적으로도 동태적으로도 더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 우월성을 눈으로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논변은 박약한 것이 되어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된다. 둘째로 그런 논변이 받아들여진다고 가정해도, 혁명은 이행의 비용을 수반하므로 노동자들은 이를 꺼려 몸을 사릴 수 있다. 자본주의 아래에서도 그럭저럭 살만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손자 세대를 위해 그들 자신과 자식들의 삶을 희생하라고 하는 요구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의 비효율성은 정말 생활고가 겹쳐 비참한 시기, 즉 노동자들이 사슬 말고는 잃을 것이 없을 때에만 오직 동기를 부여하는 힘을 가질 것이다. 비참함의 원인이 지배계급의 사기를 꺾는 효과를 가진다면, 비참한 상황은 혁명의 동기 뿐 아니라 혁명의 기회도 제공할 것이다. 만약 지배계급의 사기가 꺾이는 효과가 오지 않는다면, 그 경우 혁명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 또한 그런 효과가 있어 혁명이 성공한다 해도 공산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노동계급이 비참한 사회에서는, 객관적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있다. 공산주의에 요구되는 수준의 생산력 발전은, 혁명에 요구되는 수준의 비참한 생활고와 같이 존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앞서 언급된 혁명의 시나리오를 변형시킨 다양한 확장판 시나리오들도 이 딜레마에 설득력 있는 해답을 주지 않는다.

공산주의 혁명에 늘 붙어 따라 다니는 두 망령이 있다. 하나는 미성숙한 혁명의 위험이다. 즉 선진화된 혁명 사상과 비참한 삶의 조건이 함께 존재하지만, 공산주의를 위해 생산력의 발전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혁명의 위험이다. 다른 하나의 위험은 지배계급이 혁명을 앞서 무마하는 것인데, 위로부터의 개혁이 위험한 상황의 긴장을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는 미성숙한 혁명의 예를 많이 보아 왔다. 비록 이런 판단 자체가 미성숙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또한, 혁명을 막기 위해 고안된 많은 개혁들이 없었더라면 몇몇 나라에서 혁명이-미성숙한 것이건 아니건 간에-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맑스가 주장하였던 종류의 혁명에 들어맞는 예는 하나도 없었다. 현존하는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훔칠 따라잡아서 그 때 가서 혁명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sup>5)</sup>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믿을 만한 아무런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 측면에서-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측면에서-보자면, 맑스의 삶과 탐구는 헛짓이었다. 그러나 아직 맑스의 영향력은 어떤 의미에서든 말라 없어지지 않았다. 오늘날 도덕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전통적인 의미에서 맑스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전통적 맑스주의자란 맑스가 진리이며 동시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견해-과학적 사회주의, 노동가치이론, 이윤율 저하이론과 함께 이보다는 좀 더 방어하기 쉬운 견해-의 대부분을 받아들인

5) 역주: 이 책은 동구의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하기 이전에 쓰여진 것이다.

는 사람이다. 현재로서 나 개인으로 말하자면, 이와는 다른 의미에서 맑스주의자가 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믿는다. 진리이며 중요하다고 내가 견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견해들은, 그 출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맑스에 이른다. 이것은 방법론, 이론의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 가치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착취와 소외에 대한 비판은 핵심적인 것으로 남아 있다. 더 나은 사회는 모든 인류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창조하고, 발명하고, 다른 세계를 상상하는 일-을 하도록 허용된 사회일 것이다.